

無氏名

右消愁

三三五.

萬頃滄波水로도 다 못시을 千古愁를 // 一壺酒가지고 오늘이야 시서괴야 // 太白이 이러함으로 長醉不醒호닷다

▶한없이 넓고 넓은 바닷물(푸른 물결의 바다)로 오랫동안 다 못 씻은 예전부터 내려오는 근심걱정을, 하나의 항아리의 술을 가져다가 오늘에야 다 씻었구나. 생각하건대 이태백이 술에 오래 취하여 깨 줄을 모르는 것은 이러한 까닭이리라.

작가 : 李鼎輔(이정보) <靑永(청영)>

- | |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▷ 萬頃滄波水(만경창파수) : 한없이 넓고 넓은 푸른 물결치는 바닷물 | |
| ▷ 千古愁(천고수) : 오랜 예전부터 내려오는 근심걱정 | ▷ 一壺酒(일호주) : 한 항아리의 술 |
| ▷ 長醉不醒(장취불성) : 오래 취하여 깨지 않는다 | |

三三六.

술을 내 즐기더냐 狂藥인줄 알건마는 // 一寸肝腸에 萬斛愁 너허두고 // 醉호여 잠든 덧이나 시름 닛자 호노라

▶술을 내가 언제 좋아하더냐? 미치는 약 인줄 알건마는 한치 길이의 간장에 즉, 마음속에 만가지의 곡식과도 같은 많은 시름을 실어두고 술에 취하여 잠든 동안이나마 근심걱정을 잊어 보고자 한다.

-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▷ 狂藥(광약) : 미치는 약 | ▷ 一寸肝腸(일촌간장) : 한치 길이의 간장. 즉, 마음 |
| ▷ 너허두고 : 마음속에 넣어두다, 간직하다 | ▷ 잠든 덧이나 : 잠든 동안이나(덧→사이) |
| ▷ 萬斛愁(만곡수) : 만 가지의 곡식 낱알과도 같은 많은 근심걱정 | |
| ※ 斛(곡) : 곡식의 뜻. 10斗(두). 열 말을 한 곡(一斛)이라 한다. 즉, 한 섬 두 섬 하는 그 한 섬의 一斛이다. | |

右遊樂

三三七.

人生이 둘가 셋가 이 몸이 네다섯가 // 비러운 人生에 꾸어 온몸 가지고서 // 平生에 사를 일 만호고 언제 놀려호느니.

▶인생이 둘인가 셋인가. 이 몸이 넷인가 다섯인가. 비어온 인생이 꾸어온 몸 가지고서 평생에 살을 일만 하고 언제 놀려 하는가.

右嘲奔走

三三八.

一定百年산들 百年이 괴언매라 // 疾病憂患더니 남는날 아조격의 // 두어라 非百歲人生이 아니놀고 어이리.

▶일정백년 산들 백년이 그 얼마리. 질병우환더니 남은 날 아주 적다. 두어라. 비백세인생이 아니 놀고 어이하겠느냐.

三三九.

百沙場紅蓼邊에 구버기는 白鷺들아 // 口腹을 못 메워 더다지 굶니논다 // 一身이 閑暇홀선
정 슬져 무슴하리오.

▶백사장 홍료변에 꾸벅이는 백로들아. 구복을 못 메워 저다지 굶니논다. 일신이 한가할선정
살져 무엇하리오.

☞작가 : 金尙憲(김상헌) <瓶歌(병가)>

▷ 口腹(구복) : ①입과 배 ②먹고 마심, 음식	▷ 메워 : 메우다, 채우다
▷ 굶니논다 : 굶닐다, 몸을 일으켰다 구부렀다 함	

三四〇.

쥐 춘 소고기들아 비부르와 자랑마라 // 淸江여원 鶴이 주리다 부를소냐 // 내몸이 閑暇하
야마는 술 못진들 엇드리.

▶쥐를 날새게 잡아 채간 저 술개들아, 배부르다고 자랑을 말아라. 맑은 강에 먹지 못하여
파리해진 학이 굶주린다고 부러워 할소냐? 이내 몸이 한가하여 하는 일이 없을망정 먹지 못
하여 살 못 쥘들 어떠하리오.

☞작가 : 具志禎(구지정). 肅宗朝(숙종조)때 활동

右修身

三四一.

내히 조타하고 늬 슬흔 일 하지말며 // 늬이 혼다하고 義아니면 좃지말니 // 우리는 天性을
직회여 삼긴대로 하리라.

▶내가 하기 좋다 하고 남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 것이요, 또 남이 한다고 해도 그것이
옳은 일이 아니거든 따라 해서는 아니된다. 우리는 타고난 성품을 따라 생긴 대로 지내리라.

☞작가 : 卞季良(변계량) <1369~1430>

字(자)는 거향(巨鄉), 號(호)는 春亭(춘정).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

三四二.

듯는 말 보는 일을 事理에 비겨보와 // 올흐면 홀지라도 그르면 마를거시 // 平生에 말슴을
굴회내면 므슴 是非이시리.

▶듯는 말 보는 일을 일의 이치에 비교해보아 옳은 일이라면 꼭 할지라도, 잘못된 일이라면
끝내 하지 말 것이로다. 평생에 말을 가리어(분별하여) 말을 한다면 무슨 시비 할 일이 있겠
느냐. (시비할 일이 없다)

☞작가 : 朱義植(주의식) 字(자)는 道源(도원), 號(호)는 南谷(남곡). 肅宗朝(숙종조)때 활동

三四三.

늬이 害홀지라도 나는 아니 겨로리라 // 줌면 德이오 겨로면 𠵿터리니 // 구부미 체게 잇거
니 굴울줄이 이시랴.

▶남이 나를 해칠지라도 나는 결코 맞상대하여 겨루지 않을 것이다. 참으면 덕이요, 겨루면
뚝같으리라. 그릇됨이 자기 스스로에게 있으니 겨룰 수가 있으랴. (다룰 수가 있겠느냐)

▷ 늬이 害(해) 홀지라도 : 남이 나를 해칠지라도	▷ 구부미 : ‘굽은 것이’의 옛말. 그릇됨이, 잘못됨이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☞작가 : 李廷蓋(이정신) 字(자)는 集仲, 號(호)는 百悔翁(백회옹). 英祖朝(영조조)때 활동

右周使

三四四.

가마귀 검거라 말고 희오라비 셀줄 어이 // 검거니 세거니 一便도 혼저이고 // 우리는 수리 두루미라 검도 세도 아네라.

▶까마귀야 검다고만 말하지 말아라. 해오라기야 어찌 희어질 줄만 아느냐. 검기도 하고 희기도 하니 오로지 한 빛으로만 분명하구나. 우리는 수리두루미라 검기도 희기도 아니하는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▷ 희오라비 : 해오라기, 백로 | ▷ 셀줄 어이 : 어찌 될 줄만 아느냐 |
| ▷ 검거니 세거니 : 검기도 하고 희기도 하니 | ▷ 一便(일편)도 혼저이고 : 오로지 한 빛으로 분명하구나 |
| ▷ 수리두루미 : 검지도 희지도 않은 잿빛 색의 큰 두루미 | ▷ 아네라 : '아니어라'의 옛말 |

구나.

三四五.

넙엇흐자 하니 모난디 ㄴ일세라 // 두렷흐자 하니 늑의손더 돌릴세라 // 外두렷 內번듯하면
기돌릴줄 이시랴.

▶넙적하다 하니 모난 곳에 베일라. 둥글다 하니 남에게 휘돌릴라. 겉은 둥글고 속이 번듯하

-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▷ 넙엇하다 : 넙적하다 | ▷ ㄴ일세라 : ㄴ이다. 베이다, 베다 | ▷ 두렷하다 : 둥글다 |
| ▷ 늑의손더 : 남에게 (손더→~에게, ~한테) | ▷ 기돌리다 : 휘돌리다 | |

면 휘돌릴 줄이 있겠느냐.

右惜春

三四六.

枇杷를 두러메고 玉蘭干에 지혀시니 // 東風細雨에 뿔드느니 桃花로 ㅅ다 // 春鳥도 送春을
슬허 百般啼를 흐넛다.

▶비파를 두러메고 옥난간을 의지하여 서있노라니, 봄바람이 살랑이는 가랑비에 떨어지는

- | | |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▷ 琵琶(비파) : 현악기의 하나로서 둥근 몸에 자루는 곧고 네 줄과 네 개의 기둥이 있음 | | |
| ▷ 玉蘭干(옥난간) : 아름다운 난간 | ▷ 지혀시니 : 의지하여, 기대어 | |
| ▷ 東風細雨(동풍세우) : 동쪽 바람의 가랑비. 즉, 봄바람에 내리는 가랑비 | ▷ 뿔드느니 : 떨어지는 것은 | |
| ▷ 桃花(도화) : 복숭아꽃 | ▷ 春鳥(춘조) : 봄의 새. 피꼬리나 종달새 등 | ▷ 送春(송춘) : 봄을 보냄 |
| ▷ 百般啼(백반제) : 백가지 울음. 온갖 울음소리 | | |
| ※ 東風細雨 : 우리나라 기후 조건은 봄에는 동풍이 불어오고 겨울에는 서풍이 불어온다.
이 중 봄에 부는 동풍은 대개 가랑비를 내리게 한다. 따라서 동풍세우를 '봄에 내리는 가랑비'
라고 흔히 말한다. | | |

것은 복숭아꽃이로다. 봄새인 피꼬리도 가는 봄을 슬퍼함인지 온갖 울음소리를 내는구나.

三四七.

꽃이 진다흐고 새들아 슬허마라 // 바람에 훑날리니 꽃의 탓 아니로다 // 가노라 희짓는 봄
을 새와 뜨슴히리오.

▶꽃이 진다고 해서 새들아 슬퍼하지 말아라. 바람에 훑날리니 꽃의 탓이 아니로다. 나는 간
다하며 휘젓고 지나가는 (무정한) 봄을 시새워서 무엇하겠느냐.

☞ 적가 : 宋純(송순) 字(자)는 遂初(수초), 號(호)는 俛仰亭(면양정), 企村(기촌)

右壅蔽

三四八.

구름이 無心탄 말이 아마도 虛浪하다 // 中天에 켜이셔 任意 돈니며셔 // 구티야 光明흔 날
빛을 짜라가며 덤느니.

▶구름이 아무런 생각도 없이 떠다닌다 함은 아무래도 믿어지지 않는 말이다. 하늘 한 군데
를 제 마음대로 오가면서 굳이 희맑은 햇빛을 덮어 어둡게 하려드니 그 속셈을 모르겠구
나.(햇빛을 덮어서 어찌하려느냐?)

☞ 작가 : 李存吾(이존오) 字(자)는 順卿(순경), 號(호)는 孤山(고산). 1341(충혜왕 복위 2)~1371(공민왕20)

▷ 구름 :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말함이나 여기서는 당시의 세상을 어지럽히는 간신, 소인배들을 빗대어 하는 말
▷ 虛浪(허랑)하다 : 언행이 허황하고 착실하지 못하다 ▷ 任意(임의)로 : 제 마음대로
▷ 구티야 : ‘구태여’의 옛말 ▷ 무심탄 : 邪心(사심)이 없다는, 나쁜 마음을 가지지 않음
▷ 날빛을 : 햇빛을, 여기서는 ‘임금의 총명’을 비유
※ 고려 말엽. 공민왕 14년. 공민왕은 왕비 노국 공주가 죽자 실의에 빠진 나머지 끝내는 국정은 멀리한 채 방탕한 생활
을 하게 되었다. 이 때 옥천사의 사비(절의 노비)의 아들이었던 요승, 신돈이 김원명의 청으로 임금의 눈에 띄어 진평후
에 오를만큼 출세했다. 그는 임금의 총회를 가화로 온갖 사악한 횡포를 저질러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다. 이에 이존오
는 正言(정언)으로써 신돈을 비난하는 상소문을 올렸으나 오히려 왕의 노여움만 사고 신돈에 의해 하옥되기에 이르렀는
데, 이 시조는 그 무렵의 作(작)으로 추측된다. 이 시조는 신돈을 가리키는 ‘햇빛을 가리는 구름’으로, 임금의 밑에서 사
악한 간신을 비유한 것으로 중천(대궐)을 마음대로 떠다니면서 임금의 총명을 흐리게 함을 개탄한 노래라 하겠다.

三四九.

구름아 너는 어이 햇빛을 감초는다 // 油然作雲하면 大旱에 조커니와 // 北風이 솔하져 불
제 벗뉘 몰라 호노라.

▶구름아 너는 왜 햇빛을 감추느냐.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나면 큰 가뭄에는 좋거니와 북풍
이 쓰러지듯이 불 때 별뉘 몰라 하노라.

▷ 솔하져 : 솔하지다, 쓰러지다 ▷ 벗뉘 : 별뉘, 별의 그림자, 빛

右歎老

三五〇.

오자 내 少年이야 어드러로 간거이고 // 酒色에 잠겨신제 白髮과 밧괴도다 // 이제야 아모
리 차근들 다시 오기 쉬오랴.

▶아~ 나의 소년 시절이야 어디로 갔단 말이나? 주색잡기에 놀아나다 보니 백발로 바뀌었구
나! 이제는 몇 안 되는 백발의 늙은이니 이제는 아무리 그 시절을 찾으려고 한들 다시 오기
쉽겠느냐.

三五一.

半나마 늘거시니 다시 젊든 못 하여도 // 이 後나 늙지말고 밧양 이만 하여고자 // 白髮
아네 나 짐작하여 더디 늙게 하여라.

▶반이나 늙었으니 다시 젊어질 수는 없다해도 이 후에나 늙지 말고, 늘 지금처럼만 하였고
자, 백발안에 나 짐작하여 더디 늙게 하여라.

▷ 밧양 : 매양, 늘, 번번이

三五二.

남도 준배업고 바든바 업건마는 // 怨讐白髮이 어더러서 온거이고 // 白髮이 公道ㅣ 없도다
날을 먼저 늙킨다.

▶ 남도 준 바 없고 받은 바도 없건마는 원수백발이 어디서 온 것인가. 백발이 공도 없도다.
나를 먼저 재촉하는구나.(늙게 하는구나)

三五三.

회여 검을지라도 회는거시 서로려든 // 회여 못 검는디 늙의 먼저 훨줄 어이 // 白髮이 公道ㅣ 작도다
날을 먼저 비안다.

▶ 회었다가 검을지라도 회는 것이 서럽다 하겠거든, 회었다가 못 검는데 남보다 먼저 훨 줄
을 어찌하리오. 백발이 공도 작도다. 나를 먼저 늙게 하는구나.

右老壯

三五四.

青春少年들아 白髮老人 웃지마라 // 공변된 하늘 아래 넌들 미양 저머시랴 // 우리도 少年
行樂이 어제론 듯 흐여라.

▶ 젊은이(청소년)들아. 백발 늙은이를 보고 웃지 마라. 이 공평한 하늘 아래 너라고 해서 늘
젊어 있으랴. 우리도 젊은 소년 적에 잘 놀고 즐겁게 지냄의 행락이 어제인 듯 하구나.

▷ 青春少年(청춘소년) : 20세 전후의 젊은 소년	▷ 공변된 : '공평한'의 옛말
▷ 少年行樂(소년행락) : 소년시절의 즐거움	

三五五.

귀밧치 세여시니 늙이 늙다 흐려니와 // 내 믋음 저물선정 늙의 말 허믈흐랴 // 꽃과 술쵸
히 너기기가 엇든 老少이시리.

▶ 귀 밧이 세었으니 남이 늙었다고 하겠느냐. 내 마음이 젊을망정 남의 말을 험담하겠느냐.
꽃과 술을 좋아하는 것이야 어찌 어리고 늙음이 있겠느냐.